

“북한, 미군유해 200구 이달 내 송환”

싱가포르 공동성명 신속 착수 北 비핵화 고위급 협상 주목 폼페이오 3차 방북 가능성도

북미가 미군유해 송환 문제를 필두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에 신속히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외신은 20일 북한이 앞으로 며칠 안에 한국전쟁 때 실종된 미군을 포함한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송환 규모가 최대 200구로 예상된다고도 전했다.

북미정상 공동성명 제4항에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각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적시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해송환은 공동성명 이행과 직결되는 일로 볼 수 있다.

정상회담 개최후 일주일여 지난 상황에

서 북미가 지체 없이 공동성명 이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복잡한 협상 과정을 요하는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 문제에 비해 덜 까다로운 미군 유해 송환부터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양측이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제는 북미정상 공동성명의 요제라 할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한 후속 고위급 협상이 언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동성명에는 '북미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는 문언이 포함되어 폼페이오 장관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성명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만 명시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미측과 북한 고위 인사간의 후속 협상에서 비핵화의 로드맵 합의가 나올 것인지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를 예상하는데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회담 직후인 지난 13~14일 방한했을 당시 기자들에게 후속 회담 개시 시점에 대해 “다음 주 언젠가에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주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지난 18일에는 후속협상 등을 위한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너무 늦기 전에”라고만 밝혀 다소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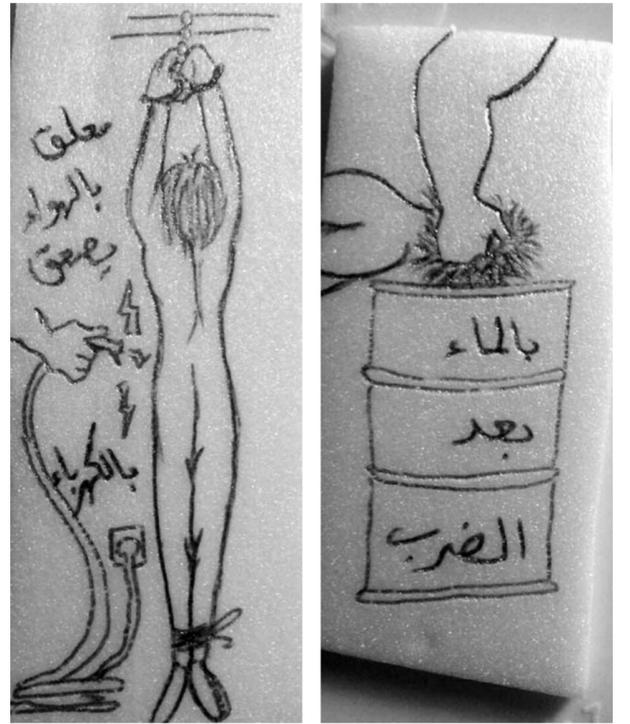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자신의 2차 방북때, 석방된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데리고 귀국했다 미군 유해 송환 관련 행사와 패키지로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방북과 북중정상회담이 향후 북미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을 끈다. 북중 양국발로 나오는 메시지는 일단

긍정적이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19일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북한)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김 위원장 방북을 통해 그런 분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중간의 치열한 무역전쟁 와중에 이뤄진 김 위원장의 3차 방북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지난 5월 2차 방북 이후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지적한 일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



UAE 교도소 성적 고문 폭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운영하는 한 비밀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이 최근 AP통신에 그림과 편지를 보내 자신들이 당한 성적 고문을 폭로했다. 재판도 받지 않고 수감된 예멘 남성 수감자들은 아랍어로 '강제로 발가벗겨졌다'는 내용 등을 그림에 담았다. /연합뉴스

첫 만남에 '제거' 발언

金-폼페이오 아찔 농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월 초 방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은 김 위원장의 '제거'를 시사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놓고 농담하며 파란대소했다고 미국 잡지 배너티피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을 보자마자 그의 발언을 꼬집어냈고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움츠러들지 않고 "난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응수했으며 두 사람은 큰 웃음을 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첫 방문 때 이미 국무장관으로 지명됐으나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첫 방북 때는 CIA 국장 자격이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아스펜안보포럼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김 위원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북한 주민들은 그가 축출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김 위원장 제거 필요성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난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로 응수한 것은 당시 아직 CIA 국장 신분임을 김 위원장에게 상기시킨 농담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뒤 "나하고 이렇게 배짱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4월23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것도 두 사람간 이런 대화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美 이민자 자녀 격리 '텐트 시티'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토널로에 설치된 불법이민자 자녀 격리시설에서 아이들이 텐트 사이를 한 줄로 걸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무관용 정책'으로 부모와 격리된 이민자 자녀의 수가 급증해 기존 보호시설을 꽉 채우자 미 보건당국이 임시로 마련한 이른바 '텐트 시티'다. /연합뉴스

日, 유엔 총회에서 北 비핵화 관계국 회의 추진

일본 정부가 오는 9월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맞춰 북한 비핵화를 협의할 관계국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북측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유엔 총회 기간 관계국 정상급들이 참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회의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당시 비상임 이사국으로 일본이 회의를 주재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모델로 이런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비핵화와 북한'을 주제로 열렸던 당시 회의에는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참석해 렉스 틸러스 당시 미국 국무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일본 정부는 9월 개최할 회의에 북한의

정상이나 고위 관료의 참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회기가 성사되면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을 쫓아다니던 '패싱'(배제) 논란에서 벗어나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의 개최와 함께 북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갈 비용을 모으는 역할을 할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일본 정부의 구상은 북한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결정될 수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미국-대만 합동훈련으로 중국 옥죄다

중국 합동훈련 제외 추진

미국이 대만군과 합동군사훈련을 공식화하는 반면 중국의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RIMPAC·림팩)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간) 통과시킨 '2019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미군이 대만의 정례 군사훈련인 한광(漢光) 훈련 등에 참가하고 대만도 미국 군사훈련에 참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미국과 대만군간 합동군사훈련을 공식화한 조처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에 따른 대만과의 공식관계 단절에도 그간 대만군을 미국 훈련에 비공식 초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수권법안은 특히 대만의 비대칭 전력 증강을 위해 시의 적절한 무기판매를 검토하고 대응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만관계법'과 '6항보증'(六項保證) 내용을 재확인했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올해 초 미 의회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으로 시행된 대만여법법을 기반으로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법안에는 중국군의 림팩 훈련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미국의 핵심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이유로 중국에 보냈던 림팩 참가 초청을 취소한 상태다.

림팩은 미 해군 주도로 하와이 근해 등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으로 중국은 2014년, 2016년 훈련에 참가한 바 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최근 미국의 군사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 인도, 일본이 괌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말라바' 합동훈련에 6000t급 전자정찰함을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미국이 대만 훈련에 직접 참가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지만, 이번 국방수권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할 경우 미중간 통상마찰에 이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약 1000만원~~
-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 H. 010-6834-7400

